

#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전북 포함해야”

전북 중소기업계, 새만금 산업 인프라 활용 촉구… “호남권 연계한 공동 반도체 생태계 구축 필요”

전북 중소기업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전북을 포함한 반도체 공동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병진)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북이 핵심 축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메가프로젝트가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이자 균형발전 정책이지만, 최근 공개된 세부 투자 계획에서는 전북이 사실상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김병진 회장

금리 RE100 실현에 적합한 국내 대표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친환경 생산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최대 106만 평 규모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고,

클러스터 투자 규모인 896조 원이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되면서 전북은 핵심 인프라 투자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새만금 RE100 실현에 적합한 국내 대표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친환경 생산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최대 106만 평 규모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추가 산업용지 확보도 가능해 첨단산업 유치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역 중소기업들도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며, 전북이 반도체 벨트에서 제외될 경우 지역 기업의 투자 의지와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지방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반도체 산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광주·전남과 전북이 함께 성

장하는 공동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진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은 “전북 중소기업계도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전북을 포용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입장문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전북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등 전북지역 25개 중소기업 및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오상근 기자



한전 입실지사는 지난 10일 전기배전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에 기여한 감리원을 격려하기 위해 ‘우수 배전감리원 및 우수 감리회사 선발 제도’를 시행하고 우수 감리원과 감리회사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 안전 중심 전기공사 문화 확산

한전 입실지사, 우수 배전감리원·감리회사 선발 포상

한전 입실지사가 전기배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 배전감리원과 우수 감리회사를 선발해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안전 중심의 현장문화 정착에 나섰다.

한전 입실지사(지사장 김갑현)는 지난 10일 전기배전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에 기여한 감리원을 격려하기 위해 ‘우수 배전감리원 및 우수 감리회사 선발 제도’를 시행하고 우수 감리원과 감리회사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과 품질관리에 힘쓴 감리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해 재해 없는 안전한 전기공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

련됐다. 김갑현 한전 입실지사는 “이번 포상이 현장 감리업무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매년 우수 감리원과 우수 감리회사를 선발해 포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안전하고 품질 높은 전기배전공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 산업보안 강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전북자치도·전북테크노파크, 산업기술 유출 대응 체계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산업핵심기술 보호와 기업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10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산업보안 분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용역 수행기관 관계

자들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산업보안 분야 중장기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북 산업 특성을 반영한 산업보안 정책의 방향과 실행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

업을 중심으로 산업기술 유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도는 기업의 산업핵심기술 보호 역량을 높이고 기존 개별 사업 중심의 산업보안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전북 산업보안 환경과 정책 현황 분석을 비롯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추진전략, 산업보안 기반 구축,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분야별 실행과제가 담겼다. 또한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연차별 추진계획, 핵심성과지표(KPI)를 포함한 단계별 실행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 규모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산업보안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보안 지원사업과 핵심기술 보호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기업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와 산업기술 유출 예방은 물론, 전북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북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산업보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 첫 안전·인권 통합 인형극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북에서 처음으로 전기안전과 아동인권, 범죄예방 교육을 하나로 통합한 인형극을 선보이며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10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본사에서 도내 미취학 아동과 장애 아동 170여 명을 초청해 ‘전북 올-라이트(All-Right) 인형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를 내가 지켜요”를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인형극과 미술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사고와 범죄 위험 상황에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콘서트 안전 댄스가 포함된



안전 꾸러미를 전달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인형극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추진했다. 전기안전과 아동인권, 범죄예방 교육을 하나로 통합한 민·관·공 협력사업은 전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상근 기자

북전주농협, 청년 드론방제단과 수도작 공동방제 실시

북전주농협이 본격적인 벼 생육기를 맞아 청년조합원으로 구성된 드론방제단과 함께 수도작 공동방제를 실시하며 고품질 쌀 생산과 안정적인 영농 지원에 나섰다.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13일 청년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드론방제단을 운영해 벼 병해충 예방을 위한 수도작 공동방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방제는 병해충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기에 방제를 실시해 벼의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 방식으로 넓은 농경지를 신속하고 균일하게 방제해 작업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청년조합원들이 직접 드론방제단을 구성해 방제 작업에 참여하면서

청년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스마트농업 확산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북전주농협은 공동방제를 통해 농가의 방제 비용과 노동력을 줄이고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해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우광 북전주농협 조합장은 “청년조합원들이 지역 농업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하며 공동방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드론을 비롯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극 활용해 조합원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맞춤형 고용서비스로 도내 신중년 취업역량 강화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이 도내 신중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신중년 취업희망더하기’ 사업을 추진하며 맞춤형 취업 지원에 나선다.

‘신중년 취업희망더하기’ 사업은 초기 상담부터 취업역량 강화교육, 구직 활동 및 취업 알선, 성공 정착 지원까지 단계별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신중년의 안정적인 취업과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진원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전북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오는 7월 취업역량강화교육 5차와 6차 과정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5차 교육은 7월 15일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3층 바깥소리 강의실에서 30여 명을 대상으로 ‘다시 시작하는 직장생활’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어 6차 교육은 7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전문교육장에서 20여 명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 새로운 시작의 품격’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교육에서는 신입사원의 자세와 경력의 가치를 점검한 실질적인 재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경진원은 이번 교육이 신중년 구직자의 취업 자신감과 직장 적응력을 높여 재취업 성공 가능성을 확대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 미스매칭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중년 취업희망더하기 사업의 향후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063-280-1010)로 신청 방법과 참여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오상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